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Pilot Project
to Make Family-Friendly Communities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Kim Seonmi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Lee Seungmie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관련 연구 동향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Pilot Project to make family-friendly communities. We examined the basic model of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propos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ne of the three local communities selected as family friendly models was chosen for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for its residents. The official performance report shows this project's process, results and future tasks. From the in-depth interview data, we defined the project's characteristics as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collaboration, model transformation from the original family friendly model to the production model, and we found some conflicts among residents upon financial issues and business items. The most important task is the 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corporate body to realize this project's performance through these three years. And this study implicates to elaborate the rural famili-

* 이 연구는 2010년도 광주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함.

** 주저자, 교신저자: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friendly community model focused on income creating community redesign, different from the urban model focused on caring.

Key Words : 가족형 모델(family friendly model),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pilot project to make liable community), 가족친화마을(family friendly community)

I. 문제제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을 만들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진 연원을 보면,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¹⁾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 채택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전개(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주민참여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를 제도화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의료,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주택 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6대 인프라로 제시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이 연구는 ‘가족친화마을’에 관한 논의와 맥이 닿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가족형’모델 시범사업 사례연구이다. 이 시범사업은 200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²⁾하였는데, 사업의 진행은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프로젝트 안에 생태형·소득형과 함께 가족형을 포함시켜 세 가지 유형의 사

업으로 추진되었다. 강원도 영월과 충북 논산 그리고 전남 장흥의 3개 지역이 2006년 12월에 ‘가족형’모델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사업이 진행되었다.

향후 법에 근거하여 계속 국가정책으로도 수행될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노력에 그 동안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환류하여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려면 우리 연구자들은 세 사례를 모두 정성을 들여 면밀히 연구해야한다. 그 동안 발전시킨 가족친화지역사회의 개념과 모델 등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어느 측면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시범사업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도 해야 하고, 또 사례 간 비교연구도 해야 하며, 전체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가정학적 관심은 가족을 하나의 생태체계로 파악하여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의 건강한 생활유지와 질적 향상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 가족과 어떻게

1) 중앙정부의 명칭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앙정부의 명칭은 해당년도의 명칭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2) 여성가족부는 2006년 시범사업 발표 당시, 지역단위 ‘가족친화형’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뿐 아니라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함께 평가지표개발 등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7년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상호작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정학 연구자들은 일과 가정이 조화되고, 자녀와 노인의 돌봄이 보장되며, 물리적·사회적으로 일정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가야한다. 특히 생활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가정학적 관점은 주민생활의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의 틀을 제공하며, 또 건강가정의 기본요소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가정의 건강성을 확보해 주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가치지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업이 개별 가정의 건강성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하였는가 혹은 앞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친화마을로 조성한 시범사업의 사례를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에 위치한 우산권역을 선택하여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가족친화마을 연구자들은 이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다려왔다. 혹시 사업이 유아무야된 것은 아닌지(차성란, 2010; 71)의 구심까지 표현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현 시점인 2010년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여기고 우리는 시범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한 채, 다음의 연구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그 현장인 장흥군 장평면의 우산마을을 찾았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가족형’시범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 혹은 성과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마을은 현재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역시 우리의 주요한 연구문제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통하여 ‘가족형’ 시범사업으로부터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기

를 희망한다.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계획한 가족형 모델에 대한 문서를 먼저 찾고, 그 후 사업종료시점에서 행정 측이 어떤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아 본 후 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자료와 함께 시범사업의 전개, 결과 및 성과 그리고 과제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족형 모델과 시범사업의 과정 및 결과를 비교하면서 이 사업의 함의를 논의하겠다.

II. 관련 연구 동향

1. 가족친화마을 개념

가족친화 마을 환경은 저출산·고령화 경향의 심화 및 가족기능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발생한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 해결과 지역과 마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개념이다(박소현 외, 2006, 2007; 홍승아, 2007b). 선행연구에서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의미한다(법률지식정보시스템). 이러한 개념정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과 오픈스페이스들이 같이 고려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마을환경”으

로 정의한 박소현 등(2006)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가족구성원별로 필요한 시설과 공간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마을내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보행환경과 공원·녹지 네트워크 및 지역전반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가(박소현 외, 2006)에 초점을 둬으로써 ‘가족친화적 공간’ 구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홍승아 등(2007)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담론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 즉 기존의 ‘일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일과 돌봄의 상호 병존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그리고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있다. 즉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란 “가족책임을 수행하고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됨으로서, 가족돌봄 문제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핵심요소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송지 등(2009)은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연구’에서 가족친화마을이란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고 가족이 필요한 환경과 관계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이를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전 연구와 달리 가족친화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주목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와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10)의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결과보고서’에서는 가족친화 마을의 의미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협의의 가족친화 마을환경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가족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하부구조-노인주간보호소,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족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등-와 가족단위로 필요로 하는 여가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시설 등 두가지 영역을 기본적 요소로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의의 가족친화마을(혹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이란 마을이라는 지리적 지역환경 안에 가족친화적 직장과 사회제도, 그리고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족친화 마을’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리고 주요 연구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개념정의를 관통하는 주요 핵심내용(문제)은 ‘가족돌봄’문제를 지역단위에서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분담하고 공유할 것인가, 이를 위해 마을단위로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고 배치되어야 하는가,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에 일차적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좀 더 확장된 범주로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 역시 가족친화의 핵심내용으로 고려된다. 즉 ‘가족친화마을’ 또는 ‘가족형 마을’은 가족돌봄이라는 핵심요소를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연구에 따라 주요내용의 범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문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 소개에서도 나타난다. 홍승아 외(2007),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로 자녀양육공동체와 네트워크 형성에 성공한 일본의 세타가야쿠시, 다양한 지역가족연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독일의 헤센 주,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호주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공동체 방식의 지역밀착형 자녀양육지원, 가족생활과 취업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역기업과 기관의 서비스 하부구조 구축 및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족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일본의 토야마시 등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사용과 에너지절약을 통한 환경친화성을 지향하는 사례(김혜영 외, 2009), ‘고령토 커뮤니티’로 명명되는 영국의 에텐프로젝트는 폐광을 재생하고 새로운 집과 주거지,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형 환경친화적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례(김현대, 2010)등에서도 가족친화 마을의 확장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친화 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 핵심요소가 무엇인가, 가족친화마을의 작동원리 또는 구성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친화마을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관해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념정의는 다양한 현실의 장에서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역으로 이러한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라는 순환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심층적 분석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의 최초 사업인 2007년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장흥의 사례를 심층분석함으로써 가족친화마을의 이론적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2. 가족친화 마을 관련 선행연구 동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가족정책차원에서 중앙부처 주도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관련연구 역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박소현 외(2006, 2007)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개념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알아낸 대상지별 특성을 통해 주거지 유형별 취약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마을환경계획에 대한 실천전략을 세울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홍승아 외, 2007a)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지역사회의 철학, 서비스 인프라, 시민의 참여와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를 제안했으며, 3가지 구성요소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을 구성하였다. 한편 이송지 외(2009)의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5개의 가족친화 마을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시1형, 도시2형, 농촌형 등 3개로 나누어 각각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달체계 또는 민간단체들을 제시하고, 마을 만들기를 위한 7단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마을 만들기의 원칙으로 주민참여와 연대, 마을의 특성에 맞는 방법 찾기, 마을단위 중심의 총체적 시스템, 지원중심의 행정(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인프라구축 등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과 전략을 도출해 시범사업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이다. 김혜영 외(2009)는 가족 및 지역사회 소통과 연대 강화 실행방안 연구에서 사업 추진전략을 ‘이웃사촌 한가족(1단계)’, ‘이웃사촌뿌리내리기(조직화단계/2단계)’, ‘이웃사촌 열매 맺기(3단계)’ 등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에 ‘한마을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통합프로그램 중심, 가족품앗이 중심, 가족멘토링 중심, 가족리더 및 리더십 중심 등 4가지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최근 생활과학분야에서도 가족친화적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먼저 ‘살기 좋은 마을의 거점에 관한 사례연구’(김선미·김소영, 2010)에서는 마을 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핵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가 가족공동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그 공동체가 줄 수 있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차성란, 2010)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족친화마을의 개념과 기능,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의 구조 및 단계별 핵심요소를 정리해냈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구조로는 시간·공간·관계차원에서 삶터만들기,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를 포함하였다. 단계별 핵심요소로는 (1) 동기화단계; 통합이념, 공동체정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살림, (2) 체계화단계; 리더와 활동가로서의 주민인적자원개발하기, (3) 주민참여와 실천 촉진 단계; 가족문제를 마을 문제로 인식하기, 공동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하기,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이해 반영하기, 지리적·사회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업 방식의 차별화를 포함하였다(차성란, 2010; 69-7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친화 마을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적용가능하거나 도시지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지 이송지 외(2009)연구에서만 지역유형 중 농촌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촌형의 지역특성을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이 필요한 마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거의 없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선행연구에서도 향후 연구와 사업이 필요한 내용으로 농촌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이외 고령화와 경제적인 안정화방안(귀농을 위한 CB 사업 제시 등)을 제안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흥에서 이루어진 ‘가족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거나 논의된 내용과는 다른 논의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형’ 모델 소개

1) 시범사업 배경

여성가족부 2006년 11월1일자 보도자료 “지역단위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한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형 마을조성을 위한 가족형모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12월 세 개 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지역에 연차적으로 2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시범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보육시설 설치, 가족프로그램 운영비 등과 관련된 정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강조한 가족친화형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사회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노인 1인 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육아, 노인돌봄 등의 기능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우리 사회 환경을 수용할 만한 기본으로 최근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공동체가 보완하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마을 공동체 만들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족친화 마을 환경’의 개념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가족형 모델』은 커뮤니티 단위 차원에서 가족지원 시설과 네트워크,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고려된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06; 2).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을 위한 “가족형 모델”은 국정과제인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포함되어 향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도시설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의의가 크다고 기대했으며, 마을단위 “가족형 공동체”모델의 확산은 거주, 경제적, 여가환경 등에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2) 가족형 모델 소개

가족형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여성가족부 2006, 붙임자료 1의1-2쪽)에서 모델의 정의와 추진목표, 기대효과 및 가족형지역만들기 전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형모델의 정의는 첫째, 다양한 가족 유형과 그 구성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패턴과 그에 따른 요구사항이 바뀌더라도 살아온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형이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말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커뮤니티 단위 차원에서 시설과 네트워크,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고려된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한다. 이 때 시설이란 모든 연령대의 가족구성원들(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게 즐거움과 휴식 또는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네트워크란 가족 모두에게 고

른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집약적이면서도 접근이 쉬운 동선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 프로그램, 아이들 및 노인을 보살피는 공동육아 등 돌봄 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셋째, 가정에서 떠맡고 있는 노인부양 및 아동양육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를 공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형을 말한다.

가족형 모델의 추진목표는 첫째,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의 필요 시설 및 공간을 충족시키는 가족생활환경의 조성 둘째, 필요 공간·시설의 유기적 네트워크화 셋째, 마을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마련 넷째,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구성될 공동육아 등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모델은 거주환경과 경제환경 그리고 여가환경의 세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었다. 거주환경 측면에서 가족들 각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보행거리 내에서 효율적인 동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공동육아, 노인 돌봄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내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소통과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역이미지 제고로 인한 인구유입 및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감소와 이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자녀·노인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 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들 수 있다. 여가환경 측면에서 일상 환경에서 가족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실외 공간 확충으로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가족형 모델은 가족 각자에게 필요한 것,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족 모두가

(표 1) 가족형 살기좋은 만들기의 구성요소 및 세부추진과제

| 구분 | 추진목표 | 추진과제 | 구체적 사업예시 |
|------|--|---|---|
| 거주가능 | 교통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이 안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환경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구축 · 노인의 보행 편의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전반적인 보행동선 연계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보도 정비 · 보행자 휴식공간 및 시설 마련 |
| | 의료 마을 내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청소년 및 노약자의 의료 지원 서비스의 제공 · 건강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마련 · 재가복지 서비스, 출장간호 서비스 등 마련 |
| | 교육 연령별 평생교육 시스템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여성, 미혼모 등의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 노인대상 평생교육의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시설의 확충 · 청소년 공부방, 노인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의 조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
| | 안전 가정과 동네에서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전망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여성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보육시설의 확충 ·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의 운영 ·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조성 ·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가로활성화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 증진으로 자연스러운 감시의 눈 형성 |
| 경제가능 | 복지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사회적 차원에서 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 연령대 소요의 확인 및 소요시설의 확충 ·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 소요조사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성 및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가족 돌봄 프로그램 ·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
| 여가가능 | 문화 가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 연령대 소요의 확인 및 소요시설의 확충 · 지역사회내 열린 문화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의 구성 ·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동아리활동 지원 · 가족문화 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의 확충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
| | 스포츠 여가 생활을 위한 장으로서의 마을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환경에서 가족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실외 공간 확충 · 각종 체육시설의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위한 놀이기구 야외 체육활동시설 확충 · 일률적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테마별 시설 보완 설치 · 여가체육시설에 대한 보행 접근성 제고 |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환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형 지역 만들기 전략으로(여성가족부, 2006;

붙임자료 1의 2쪽) 가족형 살기 좋은 지역의 구성요소가 선정되어 있고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그리고 구체적 사업예시가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의 구성요소를 거주기능, 경제기능, 그리고 여가기능으로 구분하고, 가족형 지역 만들기의 영역은 주로 거주환경 측면에서의 시설, 네트워크,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향상을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거주기능 측면에서의 향상은 경제기능 및 여가기능 향상에 있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기능 측면에서는 교통, 의료, 안전, 복지로 세분화된 정책을 통해서 가족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통해 구체적인 요구(Needs)를 반영시켜 나가고, 경제기능 측면에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새로운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이나 조직 체계를 마련하며, 여가기능 측면에서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짜여진 마을환경 자체를 문화 및 스포츠 기능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추진방식 및 운영시스템

이 시범사업의 추진방식 및 운영시스템을 보면(여성가족부, 2006 붙임자료 1; 5), 가족형 지역만들기 사업은 거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접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주민주도형 사업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행정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며

가족형 지역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 이를 적극 추진하는 의욕 있는 전담 기구와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지침을 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문제와 연구절차

본 연구의 첫 연구문제인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즉,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 혹은 성과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마을이 가지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형’모델 시범사업 마을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우산권역이라는 연구현장을 관찰하고,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심층면접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다.

자료는 복수의 문헌자료와 복수의 심층면접 자료를 놓고 자료 내 비교 및 자료 간 비교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수행함으로써 다각도로 삼각화하였다. 면담과 문헌에서 나온 공간적인 성과를 살펴보고자 마을의 제반 시설과 건물들, 축사와 계사, 식재를 해 놓은 밭, 한옥건설 현장 등 현장탐방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초기 추진계획(여성가족부, 2006)과 장흥군 건설과에서 작성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산 slow world 만들기(2006)’ 계획 자료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 성과’(2010) 자료가 주요 분석 문헌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전개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질적인 부분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능동적인 행위성을 담아내기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은 이해관계가 다른 담당공무원과 일반 주민 그리고 주민대표를 포함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두 명씩 함께 하는 면담과 따로 하는 면담 그리고

주요 담당자에 대한 복수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담당공무원면담 → 일반 주민 면담 → 주민대표 면담 → 일반 주민 면담 → 담당공무원 면담 → 주민대표 면담 식으로 대조적인 순서를 활용하였다. 면담 시 주요 인터뷰어와 보조 기록자가 함께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시에는 현장노트를 작성하고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후에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3년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 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등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사업의 전개와 성과 그리고 문제와 과제를 드러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질문들을 활용하였다. 대개 면담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전사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사업의 전개과정을 기술할 자료를 재구성하였고 또 주요한 이슈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시범사업이 주는 가족친화마을조성에 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는 사업추진과 주민경험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였고, 기존의 연구와 가족친화지역사회의 조성에 관한 도시와 농촌의 상이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연관지어 풀어나갔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장흥군 장평면의 우산권역으로서 우산·병동·장항·연동·월곡·운곡의 여섯 개 마을 공간 그 자체이며, 또 그 마을에 사는 주민과 주민대표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여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심층면접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연구의 주요 참여자가 되었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면접 일시는 <표 2>와 같다.

이 연구 초기의 접점은 사업종료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공무원을 통해 소개받은 행정직원1이었다. 행정직원1은 처음 사업의 추진단계부터 종료까지 전담공무원이며 이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수상하고 또 사례발표를 한 모범공무원이며 2011년 이 마을로 이사했다. 행정직원1은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담당자로서 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업추진성과나 군청의 내부자료를 건네주었고, 행정의 역할이나 주민들을 지원한 방식이나 과정에 관한 면담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행정직원1의 도움으로 행정직원2와 주민1과 2를 소개받았다. 행정직원2는 행정직원1과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함께 하면서 행정직원1을 보조해 왔다. 연구의 범위에 미칠 초기접점인 행정직원1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차후 면담은 다시 주민대표인 주민1의 소개로 주민4를 소개받았으며, 다시 주민4의 소개로 주민3과 주민5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주민1은 사업종료와 함께 질병으로 사망한 주민대표의 뒤를 이은 현재 우산권역의 전체 대표이다. 주민 2는 사업종료 전까지 총무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평범한 주민이다. 주민3은 사업기간 3년 동안 우산권역 세명의 이장 가운데 한 명으로 일 해 왔고, 김치공장 유치를 주도하였으며 김치작목반 소속 여성이다. 주업은 농업인데, 남편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로서 농사일도 겸하고 있다. 처음 면담 시에 주민3은 귀농자의 옆 집에 살고 있었는데, 2010년 8월 한옥으로 이사하여 행정직원 1과 이웃이 되었다. 주민4는 2009년 8월에 장성한 아이들을 서울에 두고 아내와 함께 귀농해 온 주민으로 귀농은 이 마을에서 25년만에 처음 일어난 일로 사업의 성공의 징표로 삼고 있다. 주민4는 현재 초보농민으로서 농업기술을 마을 사람들로 부터 전수 중이다. 마을 최초의 귀농자인 주민4는 마을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표 2〉 심층면접 대상의 특성

| 인터뷰 대상 | 특성 | 면담 일시 |
|---------------------|---|--|
| 행정직원 1 (남성, 58세)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행정 총괄 사업지원단계부터 확정 및 운영까지 담당 공무원(지역 개발과에서 건설과로이동했지만 사업담당자로서 사업을 건설과로 가져감.) 지금, 한옥지어 이사옴. | 1차면담 2010.4.21 2차면담 2010.6.17 3차면담 2010.7.20 |
| 행정직원 2 (남성, 39세)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행정 보조 행정 총괄 직원1과 더불어 3년간 사업관여 | 1차면담 2010.4.21 2차면담 2010.6.17 |
| 주민 1 (남성, 40세) | 지렁이 생태 학교 교장(체험리더) 느린세상양농조합 법인 2대 위원장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회장 행복마을(한옥에 민박) 대표 | 1차면담 2010.4.21 2차면담 2010.5.20 3차면담 2010.7.20 |
| 주민 2 (남성, 53세) | 추진위원회 주민2, 사업확정후 홍보위원 법인설립후 주민2, 지금, 조용한 주민 | 1차면담 2010.4.21 |
| 주민 3 (여성, 51세) | 병동, 운곡, 월곡 마을 전 이장(우산권역 세 명의 이장 중 한 명. 2007-2009. 김치작목반 / 김치 공장 임대활용 중 논, 5,000평 밭 3,000평 남편; 통근버스 운전기사이면서 농사병행 | 1차면담 2010.5.20 2차면담 2010.7.20 |
| 주민 4 (남성, 53세) | 주민4; 전직 사무직 (2009.8) 이 마을 25년만의 귀농인/논 800평 구입, 2800평 임대, 총 3,600평 / 장성해서 경제적 부담 안 주는 아들과 딸 두고 부부만 귀농(이웃과 함께 농사지을 목적) / 아내는 면 계장의 소개로 면사무소 임시직 다니다 농공단지 취직. / 김치작목반 | 1차면담 2010.5.20 |
| 주민 5 (남성, 49세) | 귀농자 2; 현재 주택 건축중, 향후 이사계획.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몰랐고, 날씨가 따뜻한 지역 그리고 가용한 땅만 보고 옴. 농사가 아니라 전원생활위해 옴. “광주에서 월급쟁이” 퇴직하면 농사보다는 그냥 거주. 부인이 텃밭수준의 농사 지을 예정 | 1차면담 2010.5.20 |

를 조심했는데 이는 주민 간 갈등이나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마을의 일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주민4는 귀농해 오는 새 주민들이 처음 접하는 접점이 되고 있다. 주민 4의 아내는 이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취업해서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해 나가고 있다. 주민5는 인근 광주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짓고 있는 이

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IV. 연구결과

장흥군 건설과³⁾에서 작성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 성과자료와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자료 그리고 연구자들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사업의 전개 과정과 사업결과 및 향후 과제

3) 행정직원1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다가 건설과로 자리를 옮기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자체가 담당자를 따라 이동한 경우로 담당자의 책임감과 더불어 지자체가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이 적극적인 담당자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여 전적으로 맡겨준 결정으로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음.

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사업 추진 성과자료는 사업개요와 연도별 투자액 그리고 추진상황 총사업비현황, 마을의 변화, 우수모범사례, 향후 운영계획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는 행정직원 두 명과 주민대표 및 일반 주민 네 명을 포함하고 있다.

1.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전개과정

1)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사업의 개요를 보면, 위치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우산지구(우산, 연동, 장항, 병동, 월곡, 운곡)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이다. 사업비는 총 2,360백만원으로, 국토균형발전특별기금 2,150백만원과 도비 210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별 농산물 공동 작업장, 유기축산, 지렁이분변토 시설확충, 지렁이 생태학습장 리모델링 등 소득기반 및 마을 홍보사업을 설정하였다. 연도별 투자액은 <표 3>과 같다. 2008년 사업평가 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2009년 하반기에 3개년 사업평가 우수권역에 선정되었다.

3개년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을 시작한 2007년에는 2월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구로 선정(행정자치부)되었고, 5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2008

년 3월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스터플랜의 4대과제는 “공간의 질 및 삶의 질 제공, 공동체 활성화, 소득기반강화”로 설정하였다. 곧이어 6월에 실적 평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평가결과 후속조치 지침으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로 지속성 담보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영농조합 ‘느린세상’을 결성하고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880백만원을 들여 유기축산 농업확대 등 7개 소득사업을 시행하였다.

2009년 2월에는 770백만원을 들여 마을공동작업장 시설 등 6개 소득사업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8월, 3개년 추진실적 평가 우수권역에 선정되어 추가 인센티브로 160백만원을 확보하였다. 그 해 말 11월에는 추가인센티브사업비로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사업 외 9건을 추진하였다.

2)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과 관의 협동; “몇몇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거 성공 못해요.”

담당공무원과 마을 대표 그리고 주민의 심층면접내용을 상호검증해 볼 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민과 관이 협동하되 주민의 주체를 세우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민과 관이 협동하여 사업을 추진한

<표 3> 연도별 투자액

| 년도 | 인센티브 사업비(백만원) | | | 비고 |
|------|---------------|-------|-----|--------------------|
| | 계 | 국비 | 도비 | |
| 계 | 2,360 | 2,150 | 210 | |
| 2007 | 550 | 500 | 50 | |
| 2008 | 880 | 800 | 80 | ‘08사업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 |
| 2009 | 770 | 700 | 70 | |
| | 160 | 150 | 10 | 3개년 사업평가 우수권역 선정 |

출처: 장흥군 건설과(20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성과 1쪽

영역은 지역선택, 사업형태 변경, 선진지견학 및 타지역 주민 초대, 마스터플랜, 주민리더십 형성, 추진위원회 구성이다.

먼저, 지역선택은 행정이 주도하였다. 행정직원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장흥군에서도 장평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도시민의 유입에 매력적인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적 장소+고령지(평지보다 4-5도 정도 낮음) 작물 재배(배추당도 좋음)로 소득과 연계가능+6개마을의 지역적 동질성으로 인한 통합가능성(소쿠리지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마을의 추진위원장과 행정담당공무원이 함께 추진하여 기필코 사업에 선정되리라 “비교적 응시율이 낮은 가족형에 응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의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있고 가족형으로 가기 위한 기반시설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연령층의 핵가족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지역이 낙후되어 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과정에서 가족형은 농촌형에 적합하지 않고 생태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가족형+생태형’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이 때, 행정안전부에서도 ‘실패할 사업보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수긍하고 협조하였다고 한다. “누가 이런 곳에 젊은 부부들이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것이여,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가족형에서 생태형으로 빠진 거죠.(행정직원1)” “가족형도 가지고 있었으나 점점 생태형에서 다시 소득형으로 빠졌고, 다행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8년에 소득창출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 순항할 수 있었다.(행정직원2)”.

형태변경과정에서 행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방향을 다시 잡아 갔는데, 친환경 생태 소득형으로 진화(폐교구입-지렁이생태체험학교, 지렁이가 핵심동력. 버섯 배추 등 재배)했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사업비용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과연 이것이 소득창출이 되겠는가 아니면 건물 하나로 건립할 것인가 저희는 여기까지 검토한 거예요.(행정직원1)”

이런 과정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추진위원회 주민2 그리고 주민3은 이구동성으로 “추진위원회, 행정, 주민이 삼위일체로 움직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초창기에는 행정의 열성이 주효하여 참여주민이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 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격려하고 공로도 인정해주고 건문을 넓히도록 해외탐방을 보내 주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생태형마을을 견학하여 개울을 볼 때, ‘민물고동이 살게 된 실제, 가보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실제’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행정직원1). 그 뿐 아니라 전체 마을 청소를 통해 개울에 쓰레기 안 버리기, 세제 덜 쓰기...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전 주민2).

선진지 견학은 주민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민과 관이 협동한 중요한 사례이다. 주민이 모두 함께 전라북도 진안의 능길마을을 8개 마을을 통폐합한 좋은 예로서 탐방하였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30개 지자체 지역민 견기대회에 참가하여 전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지는 경험을 하도록 행정이 매개하였다. 또한 역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을 초대해서 마을 사례를 시연하도록 매개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부양하고자 하였다. 행정의 매개 역할은 벤치마킹할 곳을 선택하여 연계하는 것이었는데 잘 되는 곳 뿐 아니라 잘 안 되는 곳(지명을 밝히기를 거부함)도 견학하여 주민 스스로 보고 판단하게 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행정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하며 이기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타 지역 방문 후 토의를 활용하였고, 토의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지역 의제와 연관시켜

논의하였다고 한다. 선진지 견학의 방법은 주로 견학한 마을의 지도자들을 인터뷰하고 대화하는 것이었고, 귀가 길에 조를 편성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토론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행정의 지원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김치, 장류, 한과 등의 작목반을 주민의견을 참고-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10회 이상 면담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요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담당공무원과 주민).-로 합의도출하고, 지역특성과 맞는 시설투자를 한 점 그리고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의 소자본 투자로 출범한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주체의 마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을 주도면밀하게 전향적으로 선택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주요 담당자 한 사람의 역할-철학의 고수, 민과 관의 연결, 구체적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사업을 주로 담당했던 행정가로서 행정직원1과의 면담내용과 그러한 내용에 대한 주민면담내용의 삼각검증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그는 “행정가로서 나는 관주도식·하향식 새마을 운동의 경험으로부터 반대 교훈을 얻어, 의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철학을 고수했고, 되는 것은 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즉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지만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식으로 주민의 의식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행정행위를 “막고 품는 행정 즉, 막고 품자. 느린 주민리더십 형성이지만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지역과 주민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주민을 만나러 다녔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무원이 의식을 선도하되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목표였고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인식이 충일해 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사업이 종료된 현 단계는 주민의식이 60%정도 고취되었고, 사업도 60%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현 단계가 과도기요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의 권태시기로서 자립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행정도 비예산성으로 지원해야 하며, 점진적이면서 측면에서 자문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자리를 다시 매겼다고 한다. 관을 대표하는 행정직원1은 이 마을의 사업방향에 대해 “사업이 끝나면 예산지원, 행정지원 끊길 것에 늘 사업기간 중 대비시켜왔고, 자립하도록 하고자 영농조합에 필사적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왔다.”고 한다. 영농조합은 출자만 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본인도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지역으로 2010년 8월에 이사하고, 출자해서 농민들 안심시키고자 하였다.

이 사업에서 지역행정가로서 사업선회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일선 행정공무원, 중앙공무원보다 기획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밀착행정으로 주민의식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족형을 고집했으면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자평한다. 지역행정가로서 행정안전부의 담당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보면, “너희는 뭐하려고 응모했나? 포기해라 포기 못한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 보련다.”라고 설득했는데, 행정과 추진위원회가 함께 소득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소득만 있으면 마스터플랜의 다른 3대 과제인 공간의 질 확보,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고 믿고 타협해 나간 점을 알 수 있다.

주민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추진위원장과 각 마을 이장 셋과 주민2 그리고 주민2 밑에 여성, 청년, 복지 등 7개 분과를 구성하여, 지도자 하나 되기 및 분과토론 등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몇몇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거 성공 못해요(행정직원1).” 마을주민들과 행정담당공무원은 뜻을

합하여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전 주민의 리더화를 지향하고 주민의 소외감 제거에 주력하였다.

이 마을에서 합의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기준은 첫째, 사심 없고 헌신 봉사하며 자기 돈 쓸 줄 아는 사람 둘째,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었다. 결국 이 지역 사람이면서도 도시에서 공직경험이 있는 김병선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뽑혔고, 사재를 털어 가로수를 회사 하자 전 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가로를 조성하였는데 추진위원장의 리더십은 그가 갑자기 사망한 후 공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면담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담당공무원과 현재 추진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은 “현재 주민 리더십은 60% 생성되었다.”고 총회에서 이미 정리된 듯, 명시적으로 답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비에만 의지 하지 않고, 사업비로 지은 시설에 이불도 사서 넣고 마을축제도 열고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도 활성화하고 있는 등 자치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업과의 상승작용(정보화마을, 행복마을 등)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2. 사업형태 변경 후, 사업의 진행과정

1) 마을 영농조합 법인 설립

사업진행과정은 소득을 위한 투자와 작목반이 형성되고, 마을 법인이체가 설립되었으며, 주민사이 갈등이 발생한 과정이다. 먼저 마을 법인, 그리고 작목반과 주민갈등 순서로 살펴보자. 가족형사업을 소득형으로 변경한 이후, 마을의 모든 투자는 소득사업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향후 시설 운영을 위한 책임조직 설립을 지향하여, 2008년 10월 느린 세상 영농조합법인 설립으로 소득사업을 총괄토록 지도하였다. 한편, 소득형을 추구한 결과 금전과 관련된 주민분쟁은 예상할 수 있는 일로서 이의 예방 역시 법인에 기대하는 역할이 되었다. 사업추진위원회와 법인은 잠시 중복 운영되었는데, 중복기간을 지나 사업의 추진위원장이 법인의 대표가 되었다. 사업종료 후 대표의 사망으로 2010년 봄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다. ‘느린 세상’은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판매를 위한 브랜드가 될 것이며 법인은 그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조직체이다.

〈표 4〉 느린세상 영농조합법인

| |
|---|
| · 설립목적: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의 소득증대 / 국가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구조 확보 /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조직으로의 전환 |
| · 임 원: 김병선(대표이사)외 9명(이사8, 감사2) |
| · 조 합 원: 112명 조합 가입 동의서 제출(조합가입 자격자 166명) |
| · 출자총액: 32,000천원(출자 12,720천원, 감가삼각 적립금 19,280) |
| · 자산총액: 150,000천원 |
| · 설립일자: '08. 10. 10 |
| · 운 영 비: 작목반별 보조금의 7%를 감가삼각비로 정립 / 연중 운영 감가삼각비는 보조금의 0.8% 부담 / 기타 법인 출자금으로 운영 |
| · 운영방향: 주민출자(1구좌 1만원)를 통하여 법인 산하 작목반 구성 운영 / 수익의 일정부분(10%) 마을복지 프로그램 환원 / 주민출자자: 예금이자 및 수익 분배 |
| · 주요사업: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등 |

2) 작목반 형성

주력한 소득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면담자료를 보면, 법인에서 작목반 단위로 유기축산, 유기 계사, 친환경 느타리, 지렁이 분변토사업을 세워나갔는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종료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모두들 평가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법인체를 형성하여 전수 기계화 가능한 기계를 구입하고, 작목반 별로 관리하여 농사와 대여로 경비지출을 절감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유기계사는 관찰결과 닭이 움직이기에 넓은 공간과 개방된 계사에서 길러지고 있었고, 벌써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진정성을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블루베리 등 2008년 식재한 유실수로부터는 2011년부터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치작목반인 주민3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노전순씨는 시골에서 특별히 소득사업으로 될 만한 것이 없어서 김치와 두부로 사업아이템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주민3이 김치공장을 마을사업으로 끌어왔다. “추운데서 수작업하기 어려워 김치공장 설립하였는데 김치공장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데는 노령화로 인해 애로가 있다. (노전순 전 이장)”고 한다. 식품인허가(개인 또는 공동 판매 합법화 근거)가 나면 몇 농가(귀농자 포함)라도 함께 해 볼 생각이라고 한다. 주민3에 따르면, “김장은 이지역이 고랭지이므로 배추종자 선택만 잘 하면(속이 노란 노랭이 배추 선택, 당도 좋음)되고, 그 다음이 미지근한 물에 소금 간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거운 것으로 눌러놓아 14시간 만에 씻어서 지역산물인 표고버섯과 디포리 끓인 육수를 사용하고 마늘도 듬뿍 넣고, 고추를 깨끗이 씻어서 말려 빵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김치작목반은 공장제김치와 비교하고 차별화 위해 단체로 김치공장을 견학

하였으며 사업비로 지은 김치공장의 저온창고에서 숙성시킨다. 기타 아직 활성화하고 있지 않은 작목반으로 장류와 한과류가 있는데, 법인이체가 역할을 하자마자 점진적으로 소득을 낼 것이라고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내다보았다.

그 밖에 앞의 사업성과에서 요약했듯이 체험관광으로 지렁이 생태체험학교, 버섯따기 체험 토요 시장, 오디·복분자 따기 체험, 손두부 만들기 체험, 한옥 민박 체험 등이 때로는 책임자의 관찰아래 때로는 몇 몇 작목반이나 분임조가 협동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장터도 우렁이쌀, 절임배추, 김장배추, 고사리·버섯·지렁이 싹배추를 파는 것으로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주문 판매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주민 갈등;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거죠. 풀어나가야죠.”

그러나 현 법인 대표나 주민2, 마을이장, 새로 전입해 온 귀농인 등과의 면담에서는 행정 공무원의 낙관론과 달리 몇 가지 주민간 갈등 상황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업을 추진할 때 회의론자들이 사업이 확정되자 자기 마을로 사업을 유치하고자 드러낸 지역이기주의가 그 예라고 한다.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 합의하여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표 5>에 따르면, 마을 별로 소득시설이 상이하며 우산마을이 우세함을 볼 수 있는데, ‘대표가 살거나 면장이 사는 마을에 투자가 편중되었다.’고 다른 마을에서 불평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여섯 개 마을의 하나됨을 해치고 전체 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둘째, 금전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의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리더들의 경우, 사업진행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소소한 분야에 사재를 희생하고도 이권을 챙겼다고 오해를 받거나 주

〈표 5〉 2010년 이후 예상 마을 소득액

| 소득시설 | 위치 | 작목반 | 추진상황 및 품목 | 예상 소득액 |
|-----------------|----------------|---------------|--|--|
| | | |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179백만원 · '10이후: 400백만원 |
| 장류 공동 작업장 시설 | 연동 | 8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3,000평, 배추 1,000평 식재 ·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집장류 생산판매 · 절임배추 판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20백만원 · '10이후: 30백만원 |
| 김치 공동 작업장 시설 | 병동 | 10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5,000포기 식재 · 김장김치, 묵은지, 절임배추 생산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20백만원 · '10이후: 30백만원 |
| 한과 공동 작업장 시설 | 우산 | 49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5,000포기 식재 · 한과, 절임배추, 장류, 복분자 가공판매 등 · 민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30백만원 · '10이후: 30백만원 |
| 유기 축산 시설 | 우산 | 6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15두 사육 · 유기농 초지 10만평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30백만원 · '10이후: 50백만원 |
| 버섯생산 시설 | 우산 | 6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한기 이용 버섯재배, 인건비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12백만원 · '10이후: 20백만원 |
| 유기계사 시설 | 월곡 | 법인직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수 사육 · 유정란 1,200개/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42백만원 · '10이후: 60백만원 |
| 지렁이 분변토 시설 | 우산 | 5농가 및 법인직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부터 분변토 출하 - 분변토 200t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이후: 30백만원 |
| 유실수 재배단지 | 우산 병동 월곡 | 9농가 및 법인직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베리 5,000주 · 뽕나무 4,000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5백만원 · '10이후: 70백만원 |
| 체험시설 운영 | | 법인직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운영 및 마을 농산물 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25백만원 · '10이후: 50백만원 |

출처: 장홍군 건설과(20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성과 8쪽

민들의 협동이 부족하여 기대하던 속도로 일이 성사되지 않아 받는 상처와 질곡이 있다. 면담한 주민3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다. “김치공장은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인 공사인데, 군 사업비는 건설업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과의 만남에 든 교통비를 포함해서 사적인 지출이 오히려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이 사업비를 때먹는다는 오해를 받았고 그러한 오해는 관례적으로 마을의 사업비를 때먹거나 이권을 쟁겨온 그 전 이장과 이장의 처가 근원지(주민3)”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긍정

적인 극복의 경험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안 좋게 하고 다니신 분들 고기 떠다 받치고 술 한 잔 합시다… 결국 칭찬하고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었지만 개인적인 지출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로 준공식비용이 충당되지 않아 준공식도 못했으며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결국 이장직을 사퇴했다.(주민3)”고 한다.

셋째, 중복사업의 핵심 세력 간 갈등문제이다. 사업추진성과자료(장홍군, 2010)를 보면, 장홍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도한 사항 중, 전라남도로부터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우산, 병동), 행복마을조성사업, 생

태 저류지 조성사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생약초 단지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다양한 패키지 사업 유치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마을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다른 패키지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그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경우와 달리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이를테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다른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행복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과 같은 중복사업의 핵심 세력 간 갈등이 노출되고, 마을간 이권다툼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피해의식이 잔존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면담자들은 남의 떡만 커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갈등의 해결에 대하여 어떠한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사업의 결과

1) 사업추진 성과;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및 사업효과

사업의 결과로 먼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투입된 총사업비 현황<표 6>을 보면, 총 25개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효과가 상세히 나와 있다. 핵심동력, 계획, 홍보, 소득, 체험, 복지 등 여섯 개 분야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핵심동력사업은 지렁이 분변토 시설확충으로 두 개의 사업이, 계획에는 마스터플랜 용역과 실시 설계비로 2개의 사업이, 홍보사업으로 마을홈페이지 구축과 지렁이생태 학습장 리모델링 등 두 개의 사업이, 소득 유실수 식재사업 등 12개 사업이, 체험으로 다슬기 번식장 및 체험장 조성 등 세 개 사업이 그리고 복지로 병동마을

방문객 쉼터조성 등 세 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2) 마을의 변화; 소득향상 예상, 인구유입 예상,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됨.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마을의 변화를 행정적인 보고자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법인설립을 통한 마을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주민 고정소득 확보 및 안정적 재료 확보, 농기구 공동 사용을 통한 농한기 휴경지 소득 작물(총채보리, 나이그라스 등)재배로 소득향상 및 가축 유기농 사료 공급(사료비 절감), 둘째, 마을공동 소득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2차 가공품 생산판매를 통한 소득향상, 즉 1차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김치, 장류 등 2차 가공 및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중대 방향으로 주민의식 전환한 점을 들고 있다. <표 5>를 보면, 사업이 종료된 2010년 이후 예상마을 소득액이 연간 400백만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사업결과로서 셋째, 한옥마을 유치로 외부인 전입을 통한 마을 인구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산마을에 9가구, 병동마을에 4가구 총 13가구가 전입하였다. 넷째, 체험관광 농업 기반조성을 통한 체험객 유치를 들 수 있는데, 지렁이 분변토 시설 및 생태학습장 체험객이 연간 3,200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25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해 냈다. 무엇보다도 다섯째, 사업평가 우수지자체로 두 번이나 선정('08, '09, 행정안전부)되었고, 우수 사례 발표 7회(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등) 등으로 홍보효과를 내었다.

우수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철저한 주민주체의 사업 수행 원칙을 고수한 점으로 ① 마스터플랜 수립에서부터 사업 시행,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기획회의 참여(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② 추진위원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부녀회, 청년회,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연구

〈표 6〉 총사업비 현황(2007~2009)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 | 사업효과 | 비고 |
|---------------------|---------------------------------------|----------|-------|-----|--|----------------|
| | | 총사업비 | 국·도비 | 자부담 | | |
| | 25건 | 2,511 | 2,360 | 151 | | |
| 마스터플랜 용역 | 1식 | 100 | 100 | | 마스터플랜 수립 | 계획 |
| 실시설계비 | 1식 | 30 | 30 | | | 계획 |
| 유실수 식재사업 | 뽕나무, 블루베리 9,000주 | 200 | 200 | | 소득 및 경관 개선 | 소득 |
| 다슬기 번식장 및 체험장 조성 | 번식장 1식, 체험장 1식 | 220 | 220 | | 장명천 활용 소득 및 체험 시설마련 | 체험 |
| 꼬불이 농산물 공동작업장 | | 182 | 160 | | 절임배추, 버섯, 봄나물 가공 및 분변토 재배 공을 이용한 두부 등 마을 공동 작업장 및 체험장 운영 | 소득 |
| 지렁이 분변토 시설확충 | 분변토시설 1동 (A=672㎡) | 209 | 190 | 19 | 우분, 축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통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지렁이 분변토 생산으로 소득기반 강화 | 핵심 동력 사업 |
| 유기축산 농업 확대 | 축산시설 1동 (A=508㎡) | 242 | 220 | 22 | 자연 순환형 유기축산 모델 형성 및 견학시설 구축 | 소득 |
| 버섯생산 단지조성 | 버섯생산시설 1동(A=148㎡) | 110 | 100 | 10 | 지렁이 분변토 비료 사용 고랭지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 버섯생산 및 가공, 버섯따기 체험과 병행 | 소득 |
| 유기계사시설 | 계사시설 1동 (A=468㎡) | 110 | 100 | 10 | 지렁이 먹이 및 방목시설로 사육, 유통관 및 친환경 유기닭 사육 판매, 견학 및 체험 시설 활용 | 소득 |
| 병동 저온창고 시설 | | 80 | 80 | | 소득(김치 저장고) | 소득 |
| 마을 홈페이지구축 | 1식 | 20 | 20 | | 마을 홍보 및 체험 홍보 | 홍보 |
| 블루베리 식재사업 | 400주 | 11 | 10 | 1 | 소득 및 경관 개선, 체험 | 소득 |
| 장류 공동 작업장 시설 | 작업장: A=100.4㎡ 저온창고: A=57.96㎡ | 262 | 250 | 12 | 지렁이 분변토 비료 사용, 친환경 유기농 장류 가공, 체험과 병행, 한옥형 시설 | 소득 |
| 김치 공동 작업장 시설 | A=100.8㎡ | 215 | 200 | 15 | 지렁이 분변토 비료 사용, 고랭지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배추 재배 및 가공, 축제·체험과 병행, 한옥형 시설 | 소득 |
| 한과 공동 작업장 시설 | 작업장 A=96.39㎡ 저온창고: A=36.80㎡ | 249 | 235 | 14 | 지렁이 분변토 비료 사용, 친환경 쌀 재배 및 가공, 축제·체험과 병행, 한옥형 시설 | 소득 |
| 지렁이생태 학습장 리모델링 | 리모델링1식 | 20 | 20 | | 지렁이 생태 및 농업교육, 소평물 설치(홍보 기능에 따른 최소기능유지) | 홍보 |
| 지렁이 분변토 시설확충 | A=252㎡/동 | 55 | 50 | 5 | 우분, 축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통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지렁이 분변토 생산으로 소득기반 강화 | 핵심 동력 사업 |
| 체험 장비 구입 | 1식 | 11 | 10 | 1 | 체험을 위한 법인 사무실 집기 | 체험, 소득 |
| 홍보비 | 1식 | 5 | 5 | | 마을홍보 | 체험 |
| 병동마을 방문객 쉼터조성 | A=18㎡ | 35 | 30 | 5 | 마을방문객 휴식제공 | 복지 |
| 마을별 공동작업장 시설보완 | 작업도구 및 시설보완 1식 | 45 | 30 | 15 | 마을별 공동작업장 시설보완을 통한 원활한 운영도모 | 소득 |
| 우산 병동마을 하수도 정비 | 3개마을 하수도 정비 1식 | 50 | 50 | | 마을 복지향상 | 복지 |
| 소득시설 진입로 정비사업 |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1식 | 25 | 25 | | 소득 부대시설 정비 | 소득 |
| 등산로 정비사업 |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 8 | 8 | | 주민 및 방문객 복지향상 | 복지 |
| 권역 주차장 시설사업 | 주차장 1식 | 17 | 17 | | 주민 및 방문객 복지 향상 | 복지 |

출처: 장흥군 건설과(20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성과 4-6쪽

마을별 작목반 등 분임조를 적극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한 점이 바로 그러하다. 둘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보물찾기 우수마을 선정으로서, ① 마을과 별개로 운영되던 지렁이 생태학습장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보물찾기를 계기로 주민들이 마을의 보물로 인식하였고, ② 지렁이를 마케팅의 중심에 놓고 타 마을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마을 공동법인 설립으로 소득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담보한 점으로 ① 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이미지를 마을의 이미지로 홍보 ② 마을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설립으로 체계적인 운영 ③ 소득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마을로 환원하여 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체계화한 점이다. 넷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향우, 방문객과 함께하는 주민축제를 개최한 점으로, 2회(2007년 제1회: “향우와 함께 만드는 우산 슬로우 월드 만들기” 2008년 제2회: “느린 세상인의 날”)에 걸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지렁이를 주제로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인증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슬로시티 국제 관광지로서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민들의 평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전국에서 적어도 우산권역만큼은 성공했다.”

면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행정 측에서도 성공한 사업으로, 주민입장에서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소득형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평가, 현재 과정으로서의 저효율성과 법인체활성화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의 자율성과 주민행사의 체험 및 마을의 물리적 변화와 귀농자 유입

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성가에 대한 평가는 “소득형으로 방향 설정해서 처음 계획대로 잘 되었다. 예산 낭비 없다. 2011년부터 권역소득이 연간 4억 정도 예상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각 지역별 사업장에서 개인별 소득이 창출될 것이다(행정직원1).” 법인대표(주민1)도 “행정에서 투자를 잘 해가지고 법인이 있는 한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보조금을 기반사업으로 하지 않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사업으로 줌(주민들의 자기 투자 없어 별로 망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음. 예; 김치저장창고 지어 놓고 저렴하게 임대). 유기계사의 예처럼 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음”을 들어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단, 중기적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놓았으나 현재 효율성은 낮다고도 평가한다. 다른 말로 ‘주민역량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각각 사업장 통해 먹고는 살지만 공동브랜드화 ‘느린 세상’으로 가는 단계에서 좀 힘든 상태’라고 진단한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체계의 구축과 규칙제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치공장의 공동운동을 위한 총회에서 공동운영이 결렬되고 작목반장과 전 이장(주민3)이 개인적으로 연간 100만원에 임대하여 임대료는 마을로 입금하고 전기요금과 화재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치판매도 개인적으로 아는 식당과 친인척에게 수공업적으로 판매하는 단계이다(개인 대 개인의 판매는 합법적이다. 그런데 관찰과 실행연구 결과 주문, 포장, 택배 등이 비체계적이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인터넷판매가 되면 연중 생산 판매하는 것(주민3)”이다. 법인이 인허가를 받고 김치가 동일한 대표 브랜드로 가야 생산자 표시해서 개인 판매로 인터넷과 매장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수질검사 등 인허

가 작업을 마친 상태이지만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마을 대표는 주민자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가 관여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보면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자기들 나름대로도 만들더라고요. 간장, 김치, 행복마을 떡매치기 체험, 그러니까 점점 역할분담이 점점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품허가와 같이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3이 가장 흥겹게 추억하고 있으며 다시 개최되기를 염원하는 마을행사는 주민공동체성 형성의 확인의 장이었다. “2008년과 2009년 매년 3월이면, 마을행사를 했는데 농악도 하고 떡매치기, 떡 만들기 등 체험도 하고 향우를 모두 초대하고 기관장도 초대해서 걷기대회를 마을을 돌며 재미있게 했다. 여섯 개 마을 주민이 단합해서 하나 된 기분이었다. 옛날 사진들을 컴퓨터로 모아서 보여주자 주민들 모두 신기해하고 행복해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도 인정하였다. “육안으로 봤을 때, 변화가 의외로 많이 났잖아요.” 면담내용에 드러난 객관적 변화로는 담장, 물 공원, 체험장, 하수도, 도로 그리고 이농이 그치고 귀농이 시작된 점이며, 비가 시적인 심리적·사회적 변화로는 사업 확정 후 회의문화가 정착되어 주 1-2회 회의에 전원 참석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져 왔으며, 적극참여하고 회의가 체계화되었으며, 회의를 통해 토론문화를 낳았다. 사업이 확정되자 회의 참석하고, 마을 집 앞에서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동참하였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전국에서 적어도 “우산권역만큼은 성공했다.”

면담과 방문을 통해 볼 때, 이 지역의 살기 좋은 마을의 가능성은 “이농이 그치고 귀농이 일어나고 있다.”로 요약된다. 정주형 귀농자와

정주+소득형 귀농자들이 조사당시 13가구가 전입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파주에서 중학생 데리고 귀농하여 유실수 심을 계획을 가진 사람, 집만 지어 살 사람, 인천에서 온 농사짓고 살 사람, 부부 중 한 쪽만 와서 한 달 만에 돌아간 사람도 있다. 그 외 행정담당자가족도 이주하였다. 마을 대표는 귀농자에게 적극 귀농을 권유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귀농자를 적극 유치하는 이유는 밑바닥에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 깔리니까 저도 자신 있게 권하죠. 농업에 대한 확신도 자신이 별로 없는 것이고 못 벌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오시게는 못하잖아요. 행정지원이라는 밑바닥이 있으니까 그런 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권하는 것이고…”

주민4에 따르면, 고향을 피해, 개울이 흐르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하는 목표로 개인적 귀농을 시도하다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단체도움을 얻고자 귀농학교에 입학하여 이 마을에서 교육 실습을 하고 마을 위원장의 구체적 도움을 받아 귀농하게 되었는데, 품앗이에 끼워주는 것이 정착에 도움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주민들은 경계하였으나 -뭘 먹고 살려고 왔을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인사 열심히 하면 친해지고 막걸리 사다드리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내 취직문제 놓고 질시하는 주민의 협박도 경험하였다고 한다.

관찰결과 마을 주민들이 초보농민인 귀농인의 농사지도와 매주 2-3회 정도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귀농인1(주민4)은 김치작목반에 속해서 올 해 3,000포기 김장해서 서울의 연고를 통해 판매할 예정인데 귀농자가 판매에서는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추, 쌀, 참깨, 배추 등을 3000평에 농사를 짓고 있다.

주민3과 마을대표와의 면담 그리고 행정직원과의 면담내용을 분석해 볼 때, 주민들에게

귀농자의 의미가 있었는데, ‘마을 공동 사업을 함께 할 젊은 층의 유입+법인운영이나 홈페이지 운영을 도울 재원의 유입’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4의 경우, 김치작목반으로 활동하고 또 미술대학출신으로서 마을 홈페이지 운영도 가능한 사람이라고 대표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지인으로서 대표가 된 주민1에게는 자신과 입장이 유사한 귀농자1이 적절한 파트너로 고려되고 있다. 귀농인은 3-6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 집과 경작할 수 있는 땅, 그리고 귀농 후 전담직원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건의해 주었다. 예를 들어 “직불금 신청해라.” 해도 공무원 손에 머물고 귀농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마을의 과제; 마을 법인체의 활성화 및 대표의 실질적 권위 획득

소득사업 추진과 향후 시설 운영을 위한 책임조직으로 설립된 느린 세상 영농조합법인이 소득사업을 총괄해야 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 마을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의 핵심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엔 걸맞은 체계로 구성되어 온 법인체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목반 별로 책임도 주고 투자도 하게하고 법인은 법적 지위와 대행업무로 진화해야 한다. 초창기 멤버교체가 필수적이며 사실상 이탈자를 정리해야 한다. 조직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와 규칙 제정이 필요한 단계이다. 집단 체험 온다고 할 때 식사문제, 다른 작목반과 동역해야 하는 문제지만 규칙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법인 일의 주체가 서야 할 차례이다(주민 3, 법인대표).

사업이 종료된 2010년 이후 행정에서 내다 보는 향후계획은 첫째, 우산권역 소득기반 시설 운영 및 권역 종합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

는 것으로 법인이 한 축을 이루어 가공품 품질 관리 및 판매 등 마케팅에 주력하고, 마을회와 작목반이 다른 한 축을 이루어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에 주력하는 것과 들쭉, 체험확대 및 인터넷을 통한 마을 홍보에 주력하여 1사1촌 등 도농 교류, 향우회 데이터 구축으로 고정고객 확보,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 혹은 성공을 60%로 보고 있는 이 마을의 향후 과제는 마을의 법인체가 활성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향후 몇 년은 사업이 종료되어 행정 및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세워진 주민들의 자율성이 힘을 발휘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 종료시점에 리더가 교체되었다. 현재 법인의 대표(주민 2)는 “이웃 마을 출신으로 젊고 똑똑하지만(주민1)” 사업의 역사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법인체를 맡아 행정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임원의 이탈과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반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야말로 느리게” 가고자 한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불안해 하지만 마을에서 선출되었으며, 정관에 있는 대로 하자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면접시기인 2010년 8월까지도 아직 법인체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음은 식품생산 판매를 위한 브랜드개발과 인허가획득이 더디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법인체와 마을의 작목반은 필연적으로 협동하게 될 것이라고 대표이사는 믿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총회를 여는 것이 지연되고 있지만 꾸준히 임원회의를 주 2회씩 개최하면서 난상 토론을 해 가고 있다.

마을대표는 애로사항을 “자기 이익에서 나아가 공동체 이익을 위한 일에 주민의 협조가 부족하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음 단계로 전

이할 때 인적관계 청산의 어려움이 있다. 외지인(새 대표와 귀농인들)들의 개입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마을이 합심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면담자료에 나타난 법인대표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보면, 주민들의 저항은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리더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골에서 책임 맡으면 잘해도 흥, 못해도 흥” “인심도 좋고 다 좋은데 의심이 많아… 그 사람은 똑똑. 실제로 뭔가 해 보려는 사람, 사명감을 가진 사람. 그런데 추천서를 못 얻고 있다. 텃새당하고 있다. (주민 4 곧 귀농인1)” “나이가 어려서 떠안고 가지 못하고 밖으로 불평이 새 나온다. 대인관계가 부족하다. 고향이 우산이 아니라 거리감이 있다. 주민들을 끌고 나가는 게 부족하다. 군과 도와 관계 맺기도 부족하다. 앞 대표도 그렇게 잘 해도 말이 많았다.(주민 3)”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대표는 그 동안 형성된 회의문화와 공동체성 그리고 소득창출 및 운영을 위한 법인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진해야 한다.

V. 요약 및 논의

1. 연구요약

‘가족형’모델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정과제에 속한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이 사업에 대한 연구가 긴급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가족형 모델로 추진된 세 곳 가운데 한 곳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우산권역을 선택하여 시범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물리적 공간과 마을 주민들의 상호작용방식을 살펴보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토대로 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종일관 이 사업의 행정을 전담한 공무원과 3년간의 사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그리고 현재 마을의 공식적인 대표, 최근 마을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귀농인까지 포함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전개과정을 사업의 추진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형태변경, 선진지견학 및 타지역 주민과의 왕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과 관의 협동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업형태 변경 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마을 영농조합 법인 설립, 작목반 형성 및 주민 갈등의 노정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의 결과를 네가지 각도에서 제시하였다. 사업추진 성과 측면에서는 사업비, 사업량, 사업효과를, 마을의 변화측면에서는 소득향상 예상, 인구유입예상,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된 점을 보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전국에서 적어도 우산권역만큼은 성공했다.”는 자부심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의 과제로 마을 법인체의 활성화 및 대표의 실질적 권위 획득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2. 논의: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주는 함의

먼저 장흥군 우산권역의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얻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흥군의 시범사업 전개방식은 앞서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이송지 외(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모델 및 핵심요소를 제안한 차성관(2010)의 연구에서 제안한 원칙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송지 외(2009)연구에서는 가족친화마을을 만들어가는 원칙과 방향으로 주민참여와 연대, 마을의 특성에 맞는 방법 찾기, 마을단위를 중

심으로 하는 총체적 시스템, 지원중심의 행정, 지속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차성란(2010)연구 역시 주민참여와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로 출발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장흥군 사례의 경우, 민과 관이 협동하되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 즉 주민참여와 연대 그리고 지원중심의 행정 원칙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이와 함께 장흥군의 시범사업은 ‘가족형’에 응모했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에 충실한 행정적 지원으로 생태형과 소득형으로 전이되어나갔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관주도의 사업결정방식보다 지역주민 공동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하여 마을에 맞는 방법을 찾는다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원칙에도 잘 부합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장흥군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원칙이 실제로 유효하고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흥군의 사례를 통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주요한 요소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장흥군의 경우 행정담당공무원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였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에 응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서 단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 형성,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초기 기반 확보와 성공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행정적 지원은 사업의 초기기반 확보

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장흥군의 사례로 볼 때, 행정적 지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즉 선진지 견학,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넷째, 장흥군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리더의 역할 및 리더쉽의 중요성이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의 존재와 역할은 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의 역할이 한사람에 의해 주도될 때, 장흥군의 사례에서처럼 그 리더의 부재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또한 중요한 발견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결속하고 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 리더쉽은 한 개인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리더쉽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장흥군의 사례에서 볼 때, 장흥군은 ‘가족형’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그 이후 ‘정보화마을’사업, ‘행복마을’사업, ‘한옥보존마을’ 등등 다양한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내용과 취지의 사업은 결국 마을단위로 볼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확보, 또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에서 뿌리내릴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입각한 분절적 지원방식은 사업의 상호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융통성있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가 디자인하고 있는 ‘가족형’마을사업이 과연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역으로 농촌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형모델의 개념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가족친화마을’,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논의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가족형’마을사업이나 이전의 선행연구에서의 개념정의를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은 ‘가족돌봄’문제를 가족과 지역 사회 차원에서 함께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을 분담하기 위한 지역내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의 존재여부, 이들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둔 ‘가족형’마을사업은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경제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거리감은 장흥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족형’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생태형’과 ‘소득형’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디자인하고 있는 ‘가족형’마을모델은 돌봄 그 중에서도 자녀돌봄을 필요로 하는 핵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시형에 더 적합한 모델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가족형 또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구성요소를 ‘돌봄’으로만 국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족친화’ 개념 등장 의 주요 배경이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단위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돌봄’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특히 개별화되고 공동체성이 약화된 도시에서는 ‘돌봄’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족들이 만나고 함께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가족친화마을 관련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친화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총체적이라고 제안한다. 가족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고, 마을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제안한 선행연구(이송지 외, 2009)를 토대로 한다면,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즉 가족의 삶을 위한 기본적 요건은 무엇보다 물질 토대인 소득확보와 경제적 안정 및 향상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농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돌봄’보다는 ‘소득확보 또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확보를 통해 이농이 중단되고 귀농이 시작되어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를 키울 수 있고 키우고 싶은 귀농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젊은 자녀를 둔 가족의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면, 돌봄의 문제 역시 향후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흥군의 사례분석을 통해 가족친화마을의 개념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족형’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장흥군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에 초점을 둔 심층면접방법에 의한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재 60% 진전되었다고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 그리고 이 마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변화측면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의 복잡한 제반 측면-물리적 공간의 편리성, 개인의 복지나 공동체의 관계성 등 심리 사회적 변화, 경제적 삶의 질 향상 측면, 그리고 생활시간을 말하는 여가의 구성 등을 면밀히 연구하도록 설계된 양적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장흥군 우산권역뿐 아니라 영월

과 논산에서의 추진성과나 사례 연구의 결과도 기대해 본다. 가족형 모델이 다른 두 곳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로부터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세가지 시범사업을 토대로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등등 여전히 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족형 모델사업을 추진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면담 역시 필요하다. 시작부터 종료 후 평가까지 그들의 경험과 견해는 추후 사업의 진행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3) 김선미, 김소영(2009). 살기좋은 마을의거점에 관한 사례연구; 마을 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가족친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73-96.
- 4) 김현대(2010), 친환경 공동체 에코타운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384269.html
- 5) 김혜영, 홍승아, 선보영, 정재훈, 진미정(2009).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6)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 김효정(2006).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7)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2007). 가족친화마을을 평가지표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8) 보건복지가족부(2010). 가족문화조성사업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결과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9) 유창복(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이송지, 김혜장, 이경란, 곽영선, 정영화(2009).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11) 장홍군(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우산 slow world 만들기.
- 12) 장홍군(20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 성과.
- 13) 장홍군 우산지렁이마을 홈페이지. slowly.invil.org
- 14) 차성란(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1-80.
- 15) 차성란(2010). 가족친화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16) 홍승아, 김혜영, 류연규, 相馬直子, 조순주, 진미정(2007a).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7) 홍승아, 김혜영, 류연규(2007b).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직장·지역사회의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투 고 일 : 2010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19일